

미궁에 빠진 '고발 사주' 의혹

김웅 의원 "기억나지 않는다" 검찰, 진상조사 착수 윤석열 운명 검찰 손에 달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운명이 검찰의 손에 놓이게 됐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폭로한 한 매체의 보도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해명이 엇갈리며 사안 전체가 미궁에 빠진 것이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윤 전 총장 측근인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의 휴대 전화와 손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사건의) 진위를 철저히 조사해 하루빨리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애초 이번 의혹의 쟁점은 윤 전 총장이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느냐였다. 고발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 의원이 이를 반박하며 의혹의 진위는 결국 검찰의 진상조사로 가려지게 된 것이다.

대검 검찰부가 제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검찰은 발 빠르게 진상조사에 착수한 형국이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에 의한 합동감찰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수사 전환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이 같은 상황 전개가 달갑지 않다. 분위기는 분위이다. 정치공세라며 역공을 펴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향배에 따라 대선 길목에서 초대형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추미에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기용된 인사들이 검찰을 꿰차고 있다는 의혹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의혹을 던져놓고 수사한다고 하면, 그게 하루 이틀에 되겠냐"라며 "대선을 목전에 두고 심각한 여론의 정치공작성 행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을 대선 캠프 대변인으로 뒀던 유승민 전 의원 측이 짚어질 부담도 적지 않다. 비록 의혹의 책임을 지고 대변인직에서 사퇴하기는 했으나 그가 '유승민계'로 분류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야권 전체로서도 검찰의 수사와 함께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것은 큰 타격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설사 수사를 통해 사주 고발 의혹이 조작된 증거에 의한 가짜뉴스라는 결론이 날지라도 야권의 대선 레이스가 경선총행은커녕 치열한 공방전에 파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괴문서 공작...나 하나 제거하면 정권창출 되나"

고발사주 의혹 정면 반박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8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라며 정면 부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번번이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공작과 선동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느냐는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오늘 여러분 앞에 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상식적 맥락에서 봐달라"며 "제 처와 한동훈 검사장 사안 두 건을 묶어서 고발장을 쓴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다. 도무지 검사가 작성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이걸 야당에 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는 것인가. (고발 사주를 통해) 제게 유리한 것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윤 전 총장은 "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무한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하려면 정상적인 자료로 정상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 모독이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이 20년 전 '김대업 사건', '기양건설 사건' 처럼 허무맹랑한 일에 허물어져 판단을 잘못하실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그렇게 무섭나. 저 하나 공적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푼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국회로 불러달라. 당당하게 제 입장을 이야기하겠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사실이 아니면 책임질 각오를 하고 해달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심상정 "광주, 신민주주의 특별시 지정하겠다"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8일 "광주를 신민주주의 특별시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장과 협의해 생명, 인권, 민주 3원칙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면서 이같이 광주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 광주는 대한민국 정치1번지를 넘어 아시아 민주주의의 심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광주에 아시아 민주인권공원을 건립해 국제 인권교류 공간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복합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어 ▲아시아 미래 민주주의 센터 ▲국립 민주주의 연구소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를 '녹색 자유의 도시'로 만들겠다"고면서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앞당기고, 전남대와 광주과학기술원 등 지역대학에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의료·과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심 의원은 "승자독식 양당정치를 종식하고, 다당제 책임 연정을 통해 다원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정의당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날아주신 광주 시민들께서 천하 삼분지계를 만들어달라"면서 "저 심상정에게 34%를 주시면, 책임 연정을 구성해서 불평등과 기후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전환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절거건물 붕괴 참사 유가족과 면담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건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법 8인협의체, 출발부터 삐져터...회의공개 놓고 공방

민주 "다른 언론법도 같이 논의" 국힘 "언론중재법 중심 논의"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출발부터 삐져터졌다. 협의체는 8일 오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협의의 일정과 방식, 협의체에서 다룰 내용의 범위를 놓고 머리를 맞댔다.

상건례를 겸한 첫 회의였지만 여야 위원들은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중민 의원은 "소위원회 회의가 왜 비공개로 원칙으로 하겠느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소위의 입법논의는 비공개로 한다"며 "회의를 공개하면 하면 허심탄화한 논의가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회의를 공개하면 어느 쪽이 더 성의있게 논의하는지 알 수 있다. 속기도 안 하지 않느냐"며 "안전별로 토론할 때는 기자단 폴 시스템으로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소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김 의원의 말은 국회법을 오해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김중민 의원은 "언론보도를 의식한 발언만 하면 실질적 논의가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소위도 비공개로 하는 것"이라며 "야당은 언론에 자당의 입장을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느냐"고 맞섰다.

양측은 논의 범위를 놓고도 옥신각신했다. 민주당 김영민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뉴스포털 알고리즘 공정화법도 필요하다면 같이 논의해야 한다. 가짜뉴스의 유포를 막기 위해 1인 미디어에도 사회적 책임을 묻는 법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중민 의원도 "논의 과정에서 언론개혁 내지는 언론과 관련된 다른 법도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전주혜 의원은 "합의문에는 언론중재법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돼 있다. 원칙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만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우승희 전남도의원, 민주 정책위 부의장 임명

우승희 전남도의원(영암1)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기관으로 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협의와 대안제시 등의 역할을 한다. 우 의원은 지난 2019년 개발정책대선과 청소년희망대선, 2020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선, 2021년 한국지방정부학회 의정대상과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수상 등 활발한 활동으로 전남도의회를 대표하는 정책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도민과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발전과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11대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지낸 우 의원은 현재 전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특별위원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coupang
Fulfillment Services

쿠팡 광주 물류센터 오픈! 계약직 사원 모집

쿠팡 광주 물류센터는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근무 시간	주간 : 09:00 ~ 18:00 야간 : 19:00 ~ 04:00 주 5일 근무 (주 2회 휴무)
급여 조건	주간 : 192만 + @ 야간 : 240만 + @ 연장, 특근 발생 시 추가 지급
통근 버스	광주 전 지역 운행
복리 후생	퇴직금, 연차, 단체상해보험, 명절 선물, 경조 지원, 식사제공
업무	물류(입고, 출고, 재고) 지게차/히브(분류, 상하차)
지원 자격	성별 및 학력 무관 성년인 자 [단, 정년(60세) 미만인 자 초보 가능, 주부 가능, 통장 입사 가능]

문자 or 전화지원 : 010-9664-1299
광주센터/희망 근무조/성함/생년/전화번호/근무가능기간
예시) 광주센터/주간/홍길동/1970/010-1234-5678/3개월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 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입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